

‘5월의 두 청춘’ 윤상원·박기순, 무대에서 만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광주의 5월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까지 이어지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원래 두 청춘의 짧고도 뜨거운 삶에서 출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윤상원 열사, 그리고 들불야학을 세워 노동자들의 배움터를 열고 현장을 누비다 스물한 살에 세상을 떠난 박기순 열사.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1982년 재야운동가 백기완의 시에 황석영이 가사를 붙이고, 김종률이 곡을 붙여 완성한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의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삶을 조명한 창작뮤지컬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9~10일 오후 7시30분 광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만나다. 가창의예술연구회가 제작하고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들불 열사기념사업회, 푸른솔합창단이 공동기획으로 참여했다.

작품은 1970년대 후반 노동현장과 애학 운동의 시간부터 1980년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1982년 망월동에서 치러진 영혼결혼식까지 역사적 장면들을 한 편의 드라마로 엮어간다.

1978년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던 윤상원 열사는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온다. 그는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자의 삶을 봄으로 꾸고, 애학 강학으로 현장을 조직하며 점점 더 깊이 시대의 변곡점으로 걸어 들어간다.

같은 시기, 전남대 학생이던 박기순 열사는 학교에서 쫓겨난 뒤 노동자들의 배움터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광천동 성당에 ‘들불야학’을 연다. 그는 기성 교육 시스템에서 밀려난 노동자들과 함께 새 교육의 형식을 고민한다.

윤상원은 박기순의 권유로 들불야학 책임 강학을 맡으며 동지이자 연인으로 서로의 삶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 공연은 두 사람이 함께 꾸던 꿈과 웃음, 그리고 짧게 스쳐간 청춘의 시간을 섬세하게 포착해낸다.

그러나 같은 해 겨울 박기순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윤상원의 삶에는 지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긴다. 무대 위에서 이 장면은 남겨진 자의 죄책감과 슬픔, 그럼에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책임감이 교차하는 장면으로 펼쳐진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참한 학살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윤상원은 거리로 나선다. 그는 녹도서점과 들불야학, YWCA 등을 거점으로 동료들과 함께 대안언론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하며 와곡된 보도에 맞서는 행정의 입과 눈이 된다. 이후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도청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산화한다.

공연은 이 과정을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한 청년의 내면을 따라가는 서사로 풀어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현실과 초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면을 통해 슬픔과 사랑, 애도와 다짐이 뒤섞인 광주의 기억을 하나의 노래로 응축해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번 뮤지컬은 1978년 들불야학 강학으로 함께

가창의예술연구회 뮤지컬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

9~10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전용호 작가 대본·정유하 작곡



창작뮤지컬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이 9~10일 광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출연진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정유하 제공)

활동했던 전용호 작가가 집필한 대본은 바탕으로 한다. 5월항쟁 당시 투사회보 제작·배포로 투옥되었고, 이후 5·18 관련 소설과 극작을 꾸준히 이어온 그는 “윤상원은 특별한 영웅이라기보다 자신의 시대에 책임 있게 응답한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인식을 대본 곳곳에 녹여냈다.

음악은 5·18과 민중가요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유하 작곡가가 맡았다. ‘야학에 오세요’, ‘투사회보’

보를 만들자’, ‘함께 가자, 희망의 내일로’ 등 넘버들은 집회·민중가요의 선율을 연상시키면서도 현대 뮤지컬 문법을 입혀 관객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했다.

정 작곡가는 “그날의 절박함을 그대로 옮겨놓기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오늘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했다”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몇몇 장면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꺼내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준 힘은 5·18의 기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뮤지컬은 오월을 비극으로만 소비하기보다 산화한 영령들과 그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명작 아리아가 채우는 따뜻한 송년의 밤 광주시립오페라단, 12일 ACC 예술극장2

‘라 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시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오페라의 명장면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울림을 남긴다. 밝고 유려한 테너의 선율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스며들 듯 깊은 감동을 전한다.

차가운 겨울, 테너의 아리아가 온기를 더하며 무대를 밝히는 갈라 콘서트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송년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V’를 선보인다. 해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오며 연말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은 시리즈다.

이번 무대의 중심에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세 명의 테너가 선다. 독일 데트몰트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는 김지운, 국제 콩쿠르를 수차례 석권하며 탄탄한 기량을 인정받은 국립군산대 교수 이재식, 유럽 여러 극장에서 300회가 넘는 무대 경험을 쌓은 김요한까지. 각기 다른 음색과 해석을 지닌 세 성악가의 조합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기대 요소다.

프로그램은 오페라의 명장면을 응축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다. ‘라 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등 관객에게 친숙한 레퍼토리의 주요 아리아와 중창, 그리고 서정적인 칸초네 등을 폭넓게 엮여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지난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공연은 박민숙 전남대 교수의 지휘로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가 비제 ‘카르멘’ 서곡을 연주하며 시작된다. 이후 세 테너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그대의 찬 손’, ‘남몰래 흐르는 눈물’, ‘별은 빛나건만’ 등 명작 아리아를 각자의 해석으로 풀어낸다.

공연의 대미는 세 테너가 함께 부르는 투란도트의 ‘아무도 잡들지 말라’로 장식된다. 피아니스트 김성

근이 협연해 음악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는다.

최철 예술감독은 “테너의 목소리가 가진 따뜻한 힘을 겨울밤에 그대로 전하고 싶다”며 “연말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2만원, 광주예술의전당·ACC 누리집·티켓 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열린 오지호 특별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

전남도립미술관 ‘오지호와 인상주의’ 전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 우수전시 선정

오지호(1905~1982)는 한국의 자연과 빛에 서구 인상주의의 기법을 융합해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한 예술가다.

도립미술관 ‘오지호와 인상주의 : 빛의 악동에서 색채로’ 전(2024.11.15~2025.3.2)이 제21회 월간미술대상에서 ‘전시기획’ 우수전 시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기획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시는 동경예술대학 시기부터 녹향회 활동기, 원색화집 수록작, 해방 이후 남도 풍경화, 70년대 이후 후기작업, 유럽 여행 시기의 회화, 미완성 유작에 이르기까지 예술세계를 아우른다. 이울오 오승우·오승윤·오병욱으로 이어지는 오지호 일가의 회화도 함께 소개했다.

자료는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지호 화백의 회화 100여 점을 비롯해 아카이브 100여 점, 유품, 동경예술대학 졸업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체험하는 VR 콘텐츠를 비롯, 몰입도를 높이고 현대적 감상 방식을 제시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시는 동경예술대학 시기부터 녹향회 활동기, 원색화집 수록작, 해방 이후 남도 풍경화, 70년대 이후 후기작업, 유럽 여행 시기의 회화, 미완성 유작에 이르기까지 예술세계를 아우른다. 이울오 오승우·오승윤·오병욱으로 이어지는 오지호 일가의 회화도 함께 소개했다.

자료는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명의 뒷마당 워낭소리 그 겨울은 따스했네’ 12일부터 비움박물관 전시



전시실 모습.

〈비움박물관 제공〉

옛날 이맘때면 가을걷이가 끝나고 농촌은 긴 동면의 시간에 들어갔다. 약동하는 불을 지나 성하의 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물러가면, 비로소 쉼의 시간인 겨울에 들어선다.

겨울에 들었던 정감어린 소리 가운데 소의 워낭 소리가 있다. 추운 겨울을 깨우는 워낭 소리는 농경시대 소리는 둘째로 상정되는 다양한 힘의 투영돼 있다. 이제는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진 워낭소리를 사물로 들을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 눈길을 끈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문명의 뒷마당 워낭소리 그 겨울은 따스했네’ 전을 연다. 소와 관련된 워낭을 비롯해 여울바지, 여물통, 코두레, 명예 등을 만날 수 있다.

추운 겨울 아침 농부는 “딸랑” “딸랑” 울리는 워낭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쇠죽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쇠죽을 끓여 소에게 먹인 후에야 자신의 아침밥을 챙겼다.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도 농부는 흑여 소가 지칠 때 염려돼 소 등에 타지 않고 나란히 걸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옛 시절 겨울 농가에서 들을 수 있는 워낭 소리와 연계된 사물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인문학 강연인 가을겨울인문학산책 마련돼 있다. 오는 19일 오후 7시. 강형원 교수가 ‘단 한 사람이라 도니를 알아준다면’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영화 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향집 평화롭고 고요한 겨울을, 만복의 근원이라 여겼던 황소목걸이 ‘워낭’을 볼 수 있다”며 “박물관에 들러 그 시절 그 겨울의 정취와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 사용하세요”

도서·영화·공연 분야 사용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이 오는 31일로 만료된다.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3만 원 이상 미사용 시 내년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14만 원이며 도서·영화·공연·KTX·체육시설·스포츠 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축제에서도 가능하다.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14일까지)에서는 김장체험과 김치 완제품 구매 시 문화누리 카드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 축제에서도 가능하다.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14일까지)에서는 김장체험과 김치 완제품 구매 시 문화누리 카드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를 위한 전액소진 이벤트도 펼쳐진다. 지원금을 모두 사용 후 오는 14일까지 인증하면, 모두 107명에게 CU 모바일상품권(1만 원권)을 추첨해 지급된다. 이벤트 인증은 광주문화누리 카드 오토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검색하면 가맹점 조회가 된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는 “2025 문화누리 카드 사용 기한이 연말로 다가왔다”며 “전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이벤트(추첨)를 통해 선물도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